언더클로스(Under Clothes)考

—서울시내 여자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李 文 姬

〈目 次〉

Ⅰ. 序論
Ⅱ. 理論的 背景
A. 언더클로스의 歷史
B. 우리 나라의 언더클로스
Ⅲ. 結果 및 分析
Ⅳ. 結論

Ⅰ. 序 論

언더클로스(under clothes)는 겉옷(outwear) 속에 입는 衣服類의 총칭이다.

언더클로스는 크게 화운데이션(foundation), 언더웨어(under wear), 란제리(lingerie)로 분류된다. 화운데이션은 기초라는 의미 그대로 기본 체형을 補整하는 역할을 하는 브래지어(brassiere), 거들(girdle) 등을 말한다. 언더웨어는 生理衛生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셔츠(shirts), 팬티(panty) 등을 말한다. 란제리는 언더클로스중 가장 裝飾性이 풍부하며 제일 위에 입는 것으로 슬립(slip), 가운(gown) 등을 말한다.

이러한 언더클로스중 인체에 밀착하여 이상적인 몸의 균형을 잡아주며 또한 실루엣을 나타내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래지어, 거들, 슬립을 中心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더클로스를 처음 입기 시작하는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언더클로스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하여 未知部分이 많은 중고등학생에게 학교, 가정, 언더클로스 업계를 통한 언더클로스 교육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衣生活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敍述型과 그림型으로된 질문지로서 서술형 질문지의 陳述文은 국내외 先行檢査에서 사용된 기존문항 그리고 본 연구자가 새로 작성한 問項을 기초로 하였다.

그림형 질문지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언더클로스를 참고로 하여 주로 機能性에 관련되는 측면의 디자인을 선택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울시내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생을 學校種別, 地域別로 나누어 분류표집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문항은 35개 항목으로 본 조사기간은 85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였다.

Ⅱ. 理論的 背景

A. 언더클로스의 역사

언더클로스는 效用性과 裝飾性의 두 가지 요인이 상관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衣服(outwear)과 언더클로스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시대의 경과와 함께 복잡한 진보의 발자취를 남겨왔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언더클로스의 개

념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확립된 것이다.

1914~18年 大戰 終結 이후 모드(mode)는 실용적인 것을 要하여 허리와 가슴을 조여주고 스커트가 짧아지면서 콜셋도 거들로 바뀌게 되었으며 어깨끈이 붙은 것이 나오면서 브래지어라는 명칭이 붙어지게 된 것이다.[1]

란제리의 발달 과정은 현대에 와서 가장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1916년에 패티코트에서 어깨끈이 붙은 슬립으로의 진화적 현상을 볼 수 있다.

당시 언더클로스의 素材는 거의가 綿제품이었으나 綿화약의 제조를 위해 일반면의 사용이 심하게 제한을 받아 그 면을 대신해서 나타난 것이 絹이었다.

絹의 크레이프 데신(crepe dechine)으로 만들게 된 란제리가 호평을 받게 되어 絹으로 된 언더클로스가 유행되었으나 絹은 황변이 쉽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 핑크(pink)색으로 염색하게 된 것이 언더클로스 칼라화의 동기가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일론(nylon) 외 다수의 합성섬유의 잇따른 개발에 의해 언더클로스도 素材의 기능면에서 유발시켜 可塑性과 투명감각을 살린 새로운 센스(sense)의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1947년 프랑스의 크리스챤 디오르(christian Dior)가 발표한 뉴-룩(new look)은 服飾界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다.

線의 변화를 기초로 한 디자인은 몸의 선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여성에게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언더클로스의 機能을 보다 더 요구하게 되고 겉옷과 함께 발전하는 오늘날의 바디 패션(body fashion)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B. 우리나라의 언더클로스

우리나라 여성들이 속적삼, 단속곳, 바지, 속속곳, 다리속곳 등으로 단단히 무장했던 우리의 傳統服飾에 따른 고유 언더클로스는 해방이란 시대적 상황을 맞으면서 복식의 서양화와 함께 차츰 그 실용가치를 잃게 되면서 새로운 언더클로스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本章에서는 우리나라 언더클로스의 변천과정 중 企業으로서 一般化된 이후의 상황을 다룬 것이다.

1974년에서 1984년까지 시판되었던 언더클로스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브래지어, 거들, 슬립을 중심으로 10년간의 변천과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1. 브래지어

초기의 디자인(圖1-1)은 基本 3피스(3piece) 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앞중심이 높고 강한 파워네트(power net)의 사용으로 단순한 補整機能의 역할을 했다.

70년대 후반에는 2피스, 1피스 컵으로 구성된 팬시(fancy)한 스타일의 브래지어 (圖1-2, 1-3)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몰드(mold) 브라 , 스트립레스(stripeless) 브라, 와이어(wire) 브라, 롱(long) 브라(圖1-4)와 함께 여학생 브라(圖1-5), B컵 브라가 생산된 것으로 보아 사이즈(size)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바디 라인(body line)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브래지어(圖1-6)는 상컵이나 컵 밑받침 등에 모양 패널(panel)을 대주거나 다양한 봉제방법 등을 이용하여 디자인상의 많은 변화를 주었다.

84년에는 점차 바디의식이 高調되면서 스포츠(sports) 브라(圖1-7), 와이어 브라(圖1-8) 등 기능성을 요구하는 브래지어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C컵 브라가 생산됨으로써 사이즈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었다고 보며 소재의 개발과 함께 기능성과 審美性을 일치시킨 디자인의 통일성으로 완전한 화운데이션을 定立하기에 이르렀다.

2. 거 들

초기의 거들은 기본 스타일에 앞이나 뒤에 패널을 대주어 복부를 눌러주고 힙을 받쳐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圖2-1)

70년대 후반 후론트(front) 패널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초기의 하드(hard) 타입의 거들이 소프트 타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年에는 소프트(soft) 타입의 여학생 거들이 등

1. 「西洋服裝史」, 東京 : 文化出版局, p. 411.

장하기도 했다. (圖2 - 2)

80年代로 들어오면서 단순한 補整機能만을 하던 거들이 보정기능이 없는 편안한 거들로서 팬시한 감각의 레이스, 자수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허리선의 테이프(tape)가 넓은 폭에서 좁은 폭으로 거들의 길이가 차츰 짧아지는 경향으로 거들에 패션성을 가미시킨 소프트화의 물결을 이루었다. (圖2 - 3)

3. 슬 립

初期의 슬립은 단순한 A라인 실루엣으로 네크(neck)부분과 햄(hem)라인에 레이스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트임없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圖3 - 1),

80年代로 접어들면서 캐주얼(casual)의 붐과 함께 단순한 풀(full)슬립에서 하프(half)슬립, 캐미솔(camisole)과 하프슬립, 캐미솔과 팬츠(pants), 브라슬립 등 슬립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圖3 - 2).

디자인 구성도 화려한 레이스로 트임부위, 가슴부위, 햄라인 부위에 변화를 주었으며 트임의 위치도 변화하여 중앙의 트임에서 양옆 트임으로, 직선의 一字形 트임에서 곡선의 완만한 트임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게 된다(圖 3-3).

84년에는 단순한 슬립의 디자인에서 더 발전하여 데이 웨어(day wear) 혹은 나이트 웨어(night wear)로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 증가되고 있다(圖 3-4).

圖 1 - 1 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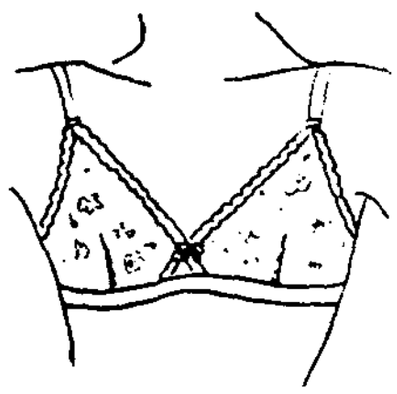


圖 1 - 2 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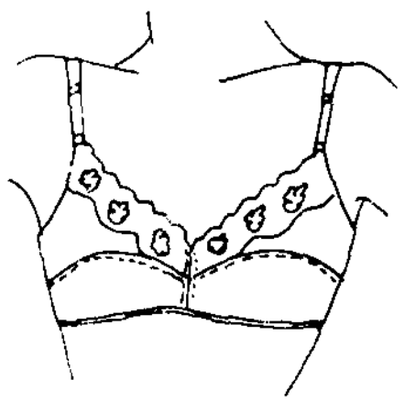


圖 1 - 3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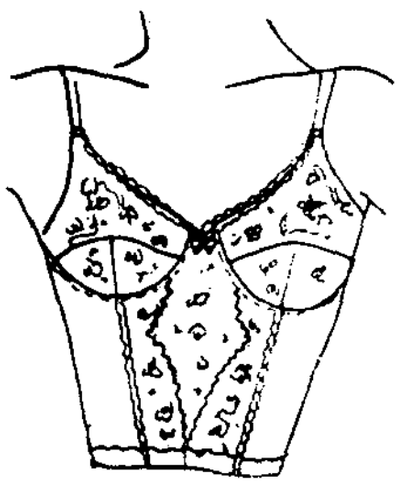


圖 1 - 4 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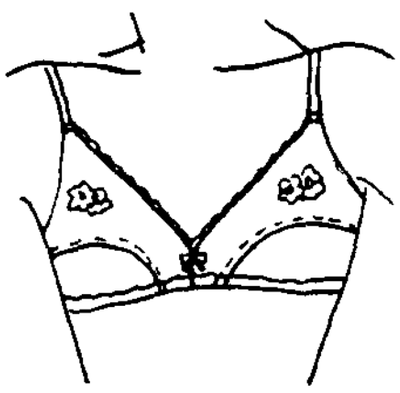


圖 1 - 5 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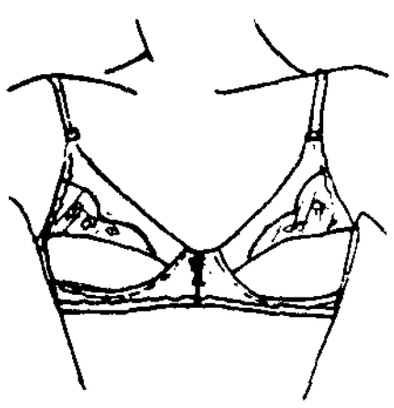


圖 1 - 6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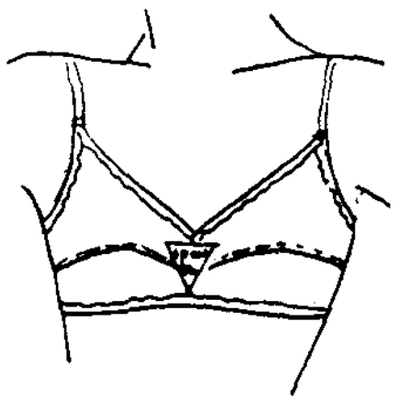


圖 1 - 7 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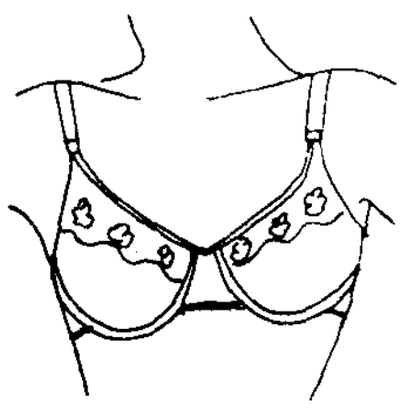


圖 1 - 8 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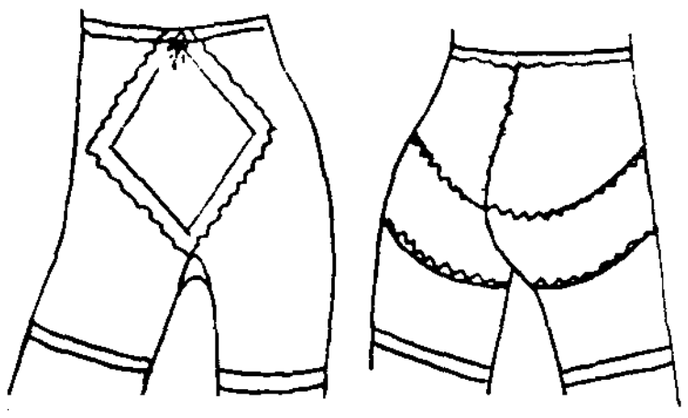


圖 2 - 1 197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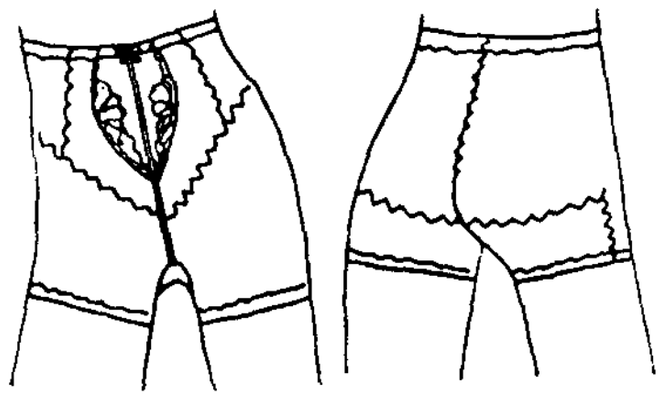


圖 2 - 2 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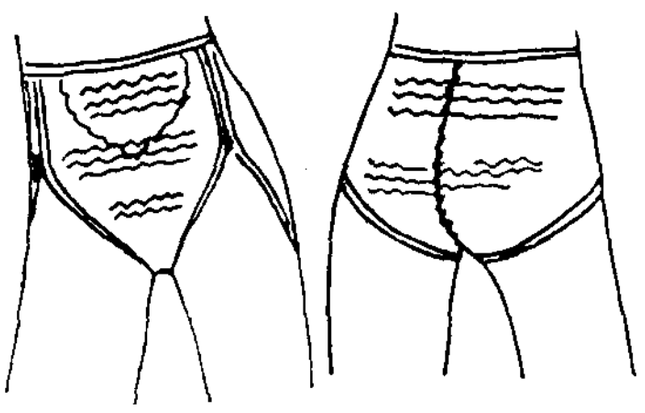


圖 2 - 3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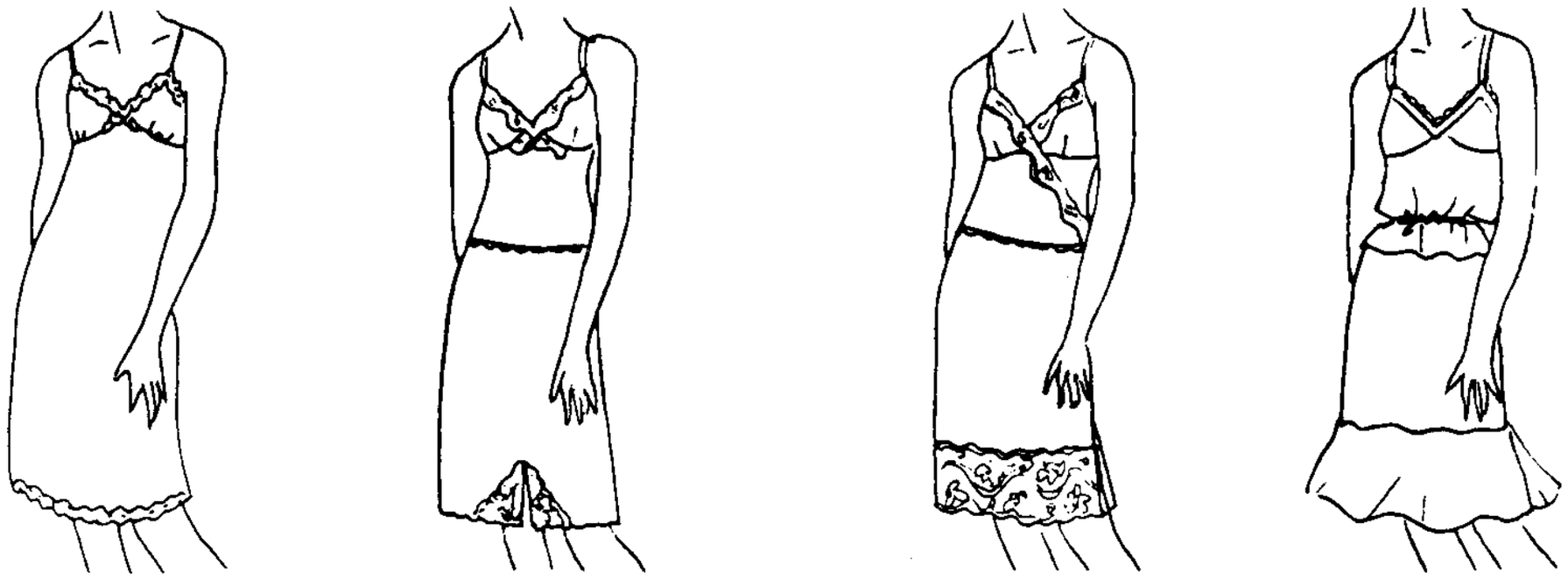


圖 3 - 1 1979년　　圖 3 - 2 1981년　　圖 3 - 3 1983년　　圖 3 - 4 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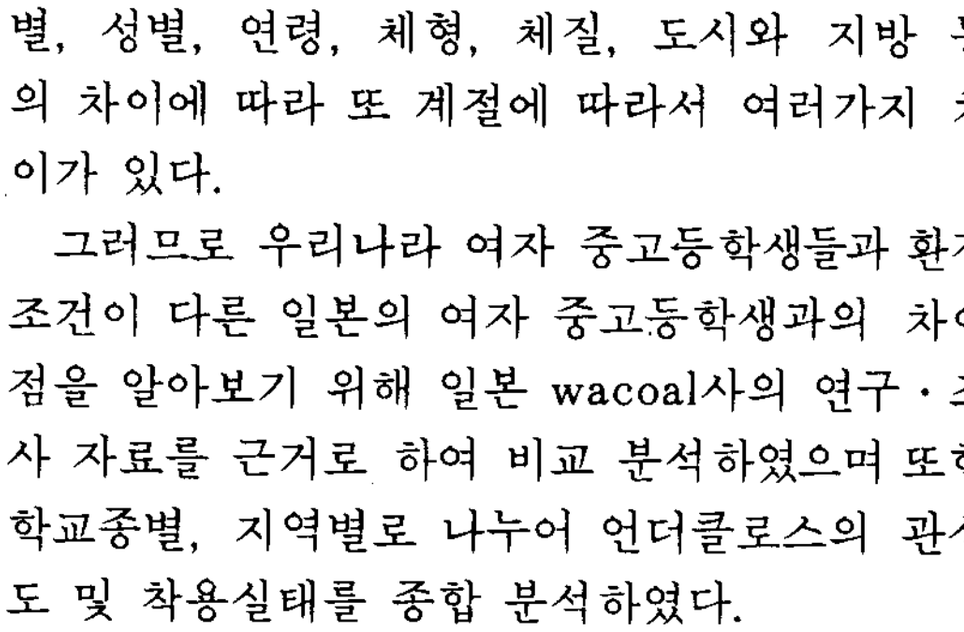
Ⅲ. 結果 및 分析

人類는 그 주거지역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의복을 발명함으로써 生物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의복에 지역차를 보이게 되었다.[2]

이렇듯 인간의 생활은 인종별, 직업별, 가옥별, 성별, 연령, 체형, 체질, 도시와 지방 등의 차이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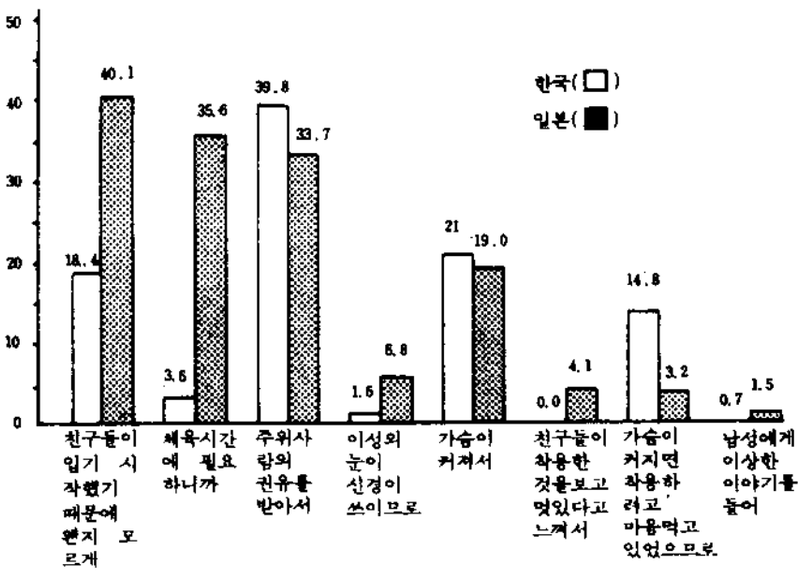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나라 여자 중고등학생들과 환경조건이 다른 일본의 여자 중고등학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 wacoal사의 연구·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학교종별, 지역별로 나누어 언더클로스의 관심도 및 착용실태를 종합 분석하였다.

브래지어를 입기 시작한 시기(圖 4)는 고교생의 과거체험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그 결과 한국 여학생의 경우 14세가 가장 많으며 11~17세까지 분포 현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 여학생의 경우는 13세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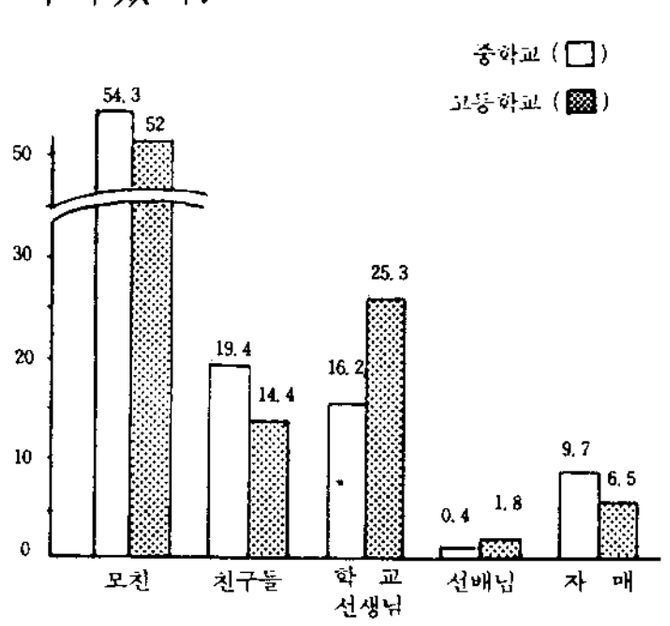
〈圖 4〉 브래지어를 입기 시작한 시기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시작한 이유(圖 5)는 한국 여학생의 경우 「주위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39.8%로 나타났으나 일본 여학생은 「체육시간에 필요하니까」 35.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 5〉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시작한 이유

브래지어 착용을 권유했던 사람(圖 6)은 「모친」으로 한국, 일본 각각 54.3%, 5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친구들」, 「학교선생님」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圖 6〉 브래지어 착용을 권유했던 사람

2. 張文戶, 「服飾美學」(서울 : 世運文化社) 1979.

브래지어의 착용목적(圖 7)은 남녀공학 여고생의 경우 「패션으로서」가 9.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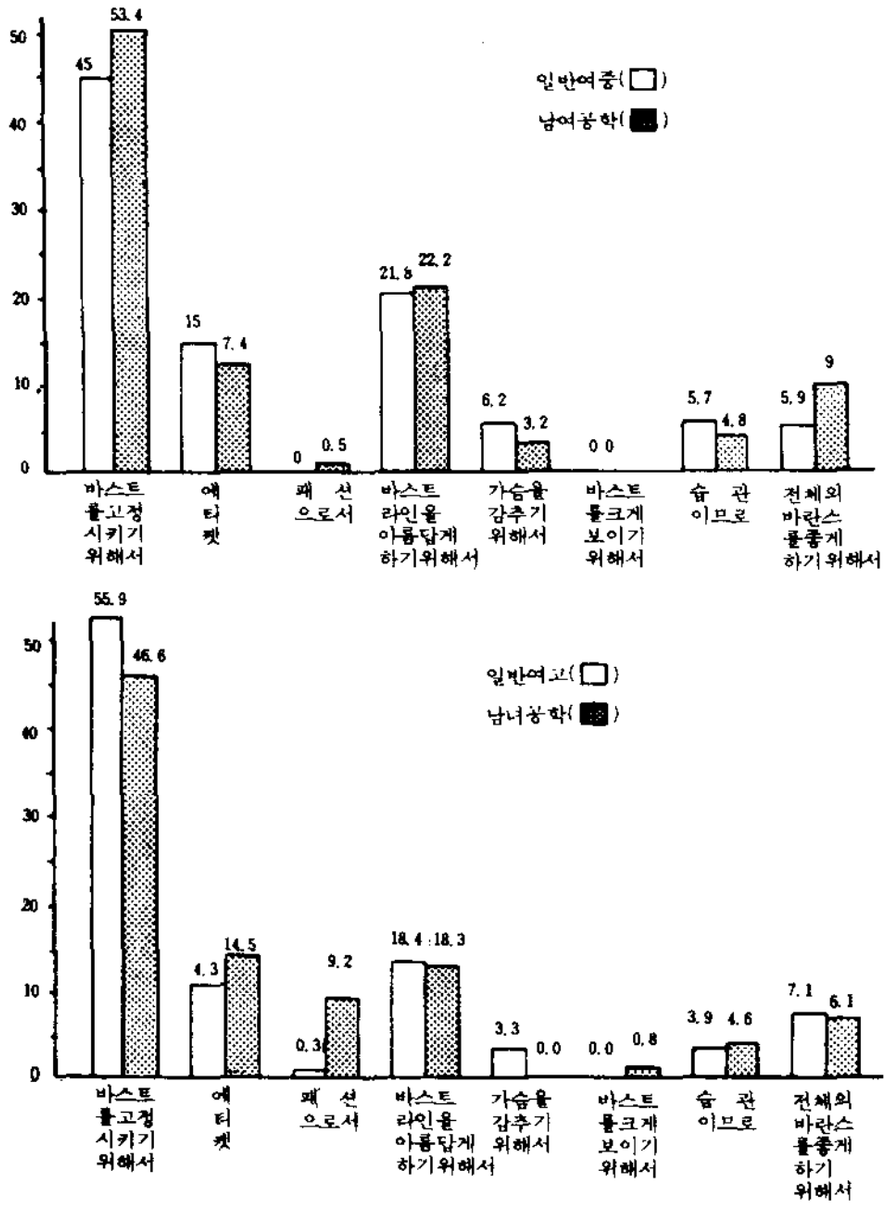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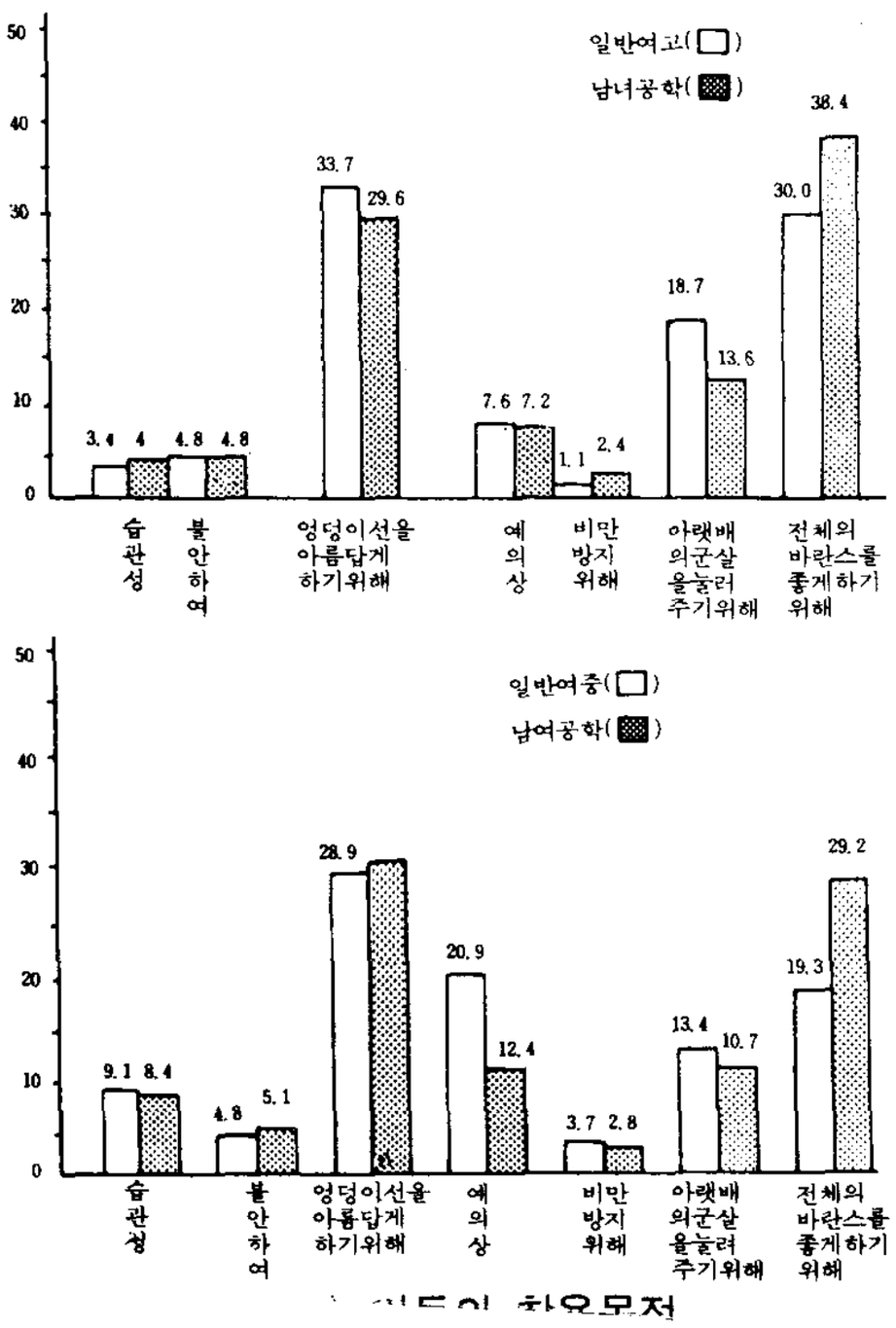


圖 7. 브래지어의 착용목적

거들의 착용목적(圖 8)은 일반학교의 여학생과 남녀공학 여학생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립의 착용목적(圖 9)은 일반, 남녀공학 모두 「겉옷이 비치므로」가 가장 높았고 특히 남녀공학 학생은 일반 여중고에 비해 더욱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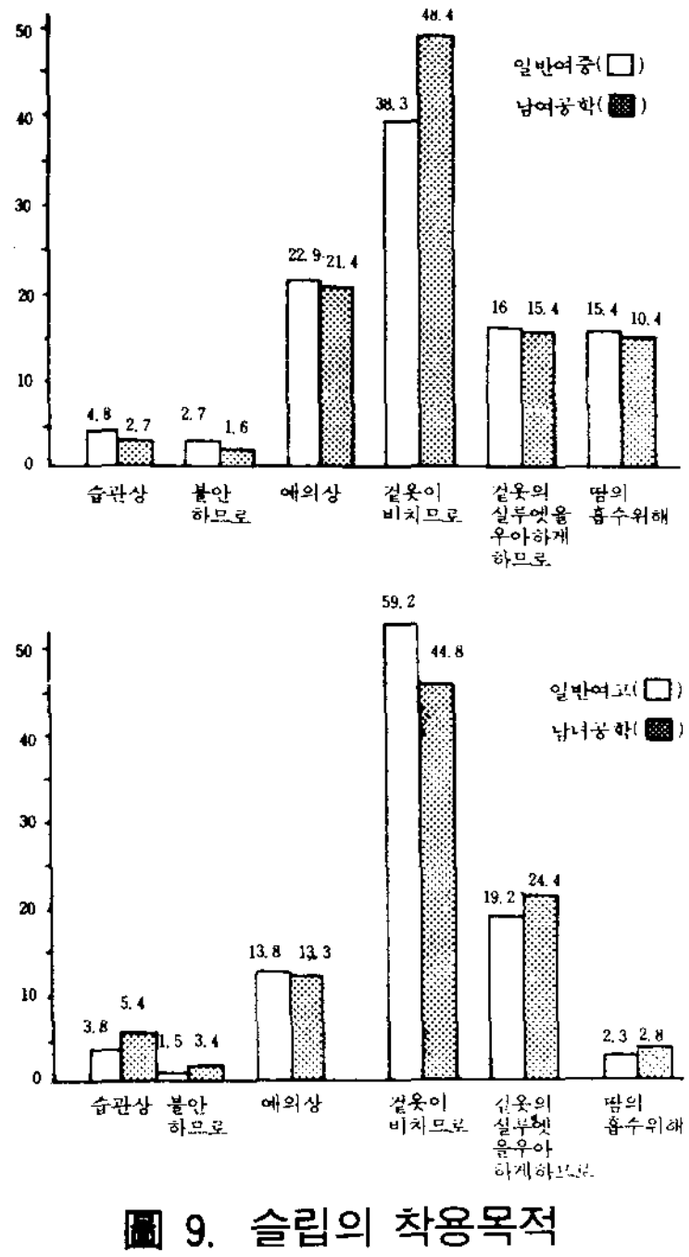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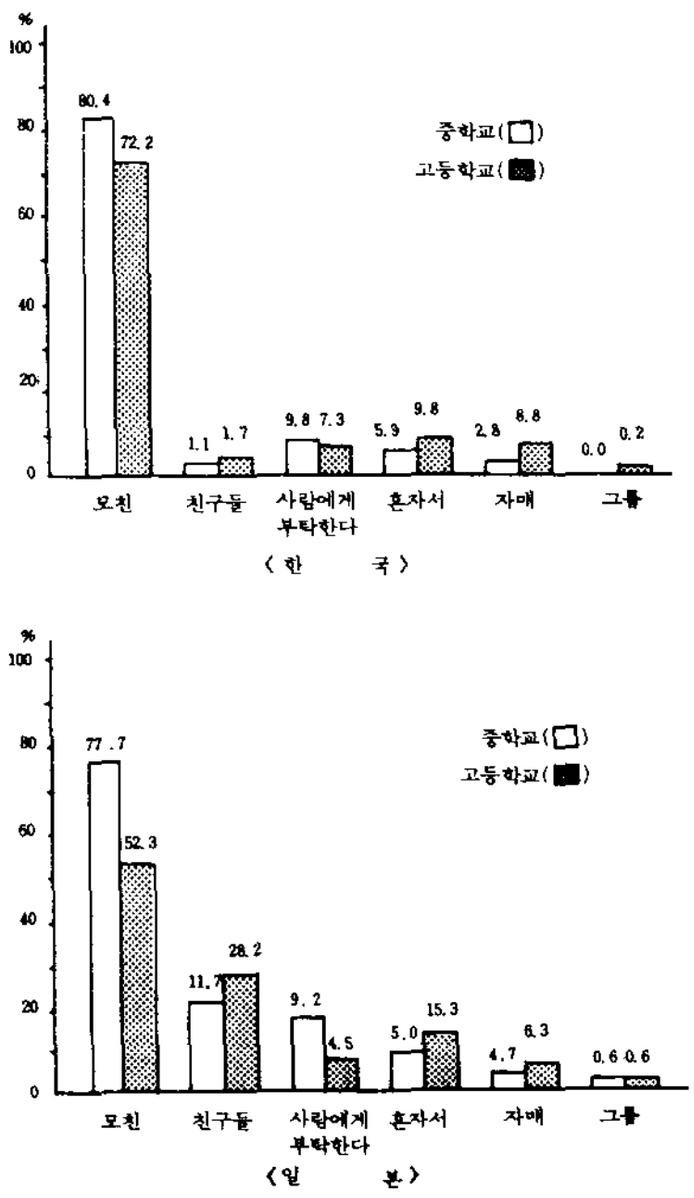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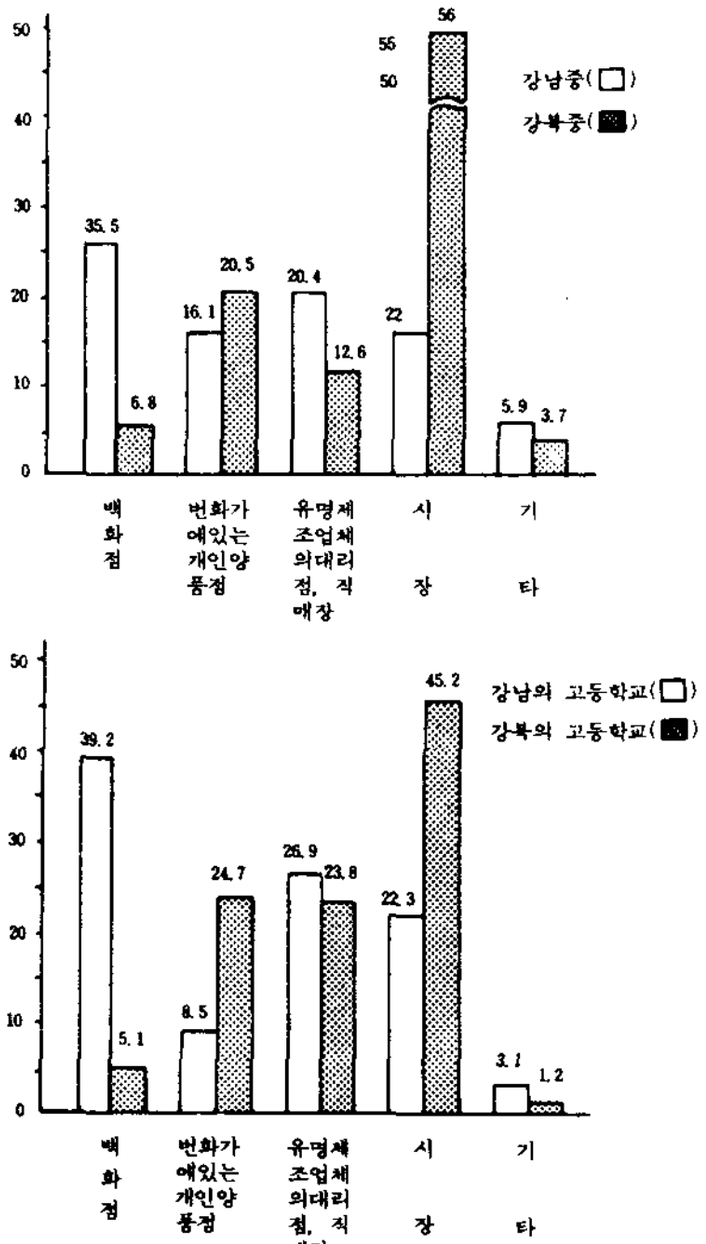
圖 9. 슬립의 착용목적

언더클로스 구입시 동반자(圖 10)는 한국·일본 모두 모친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10명 중 8명 정도로 모친동반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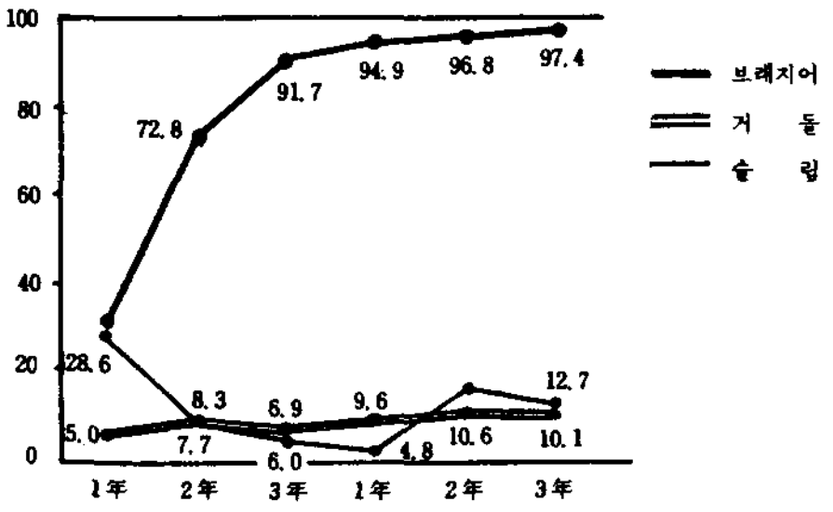
〈圖 10〉 언더클로스 구입시 동반자

언더클로스의 구입장소(圖 11)는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강남지역에서는 「백화점」 강북지역에서는 「시장」이 많이 나타났다.



〈圖 11〉 언더클로스의 구입 장소

언더클로스의 착용률(圖 12)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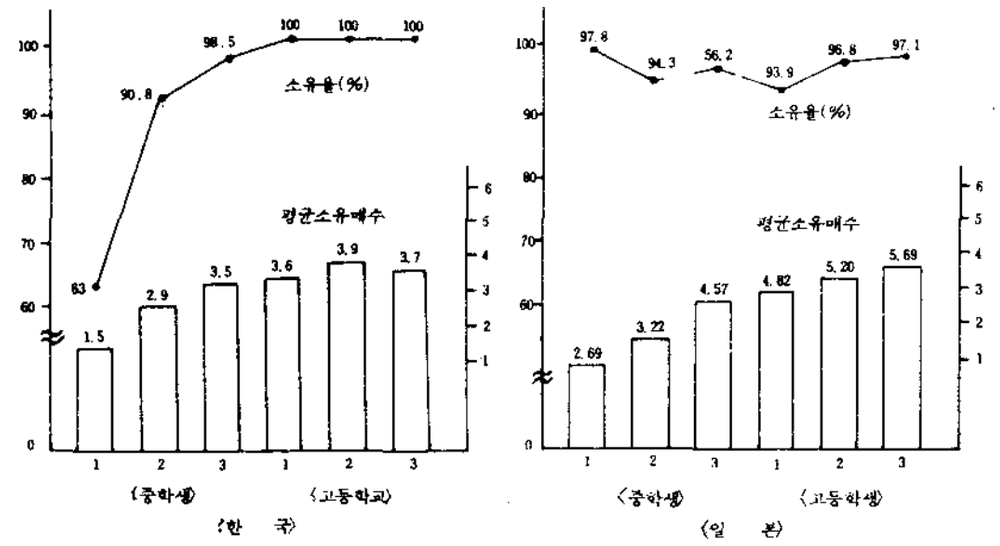
〈圖 12〉 언더클로스의 착용률

1. 브래지어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거들의 경우 대부분 10% 미만으로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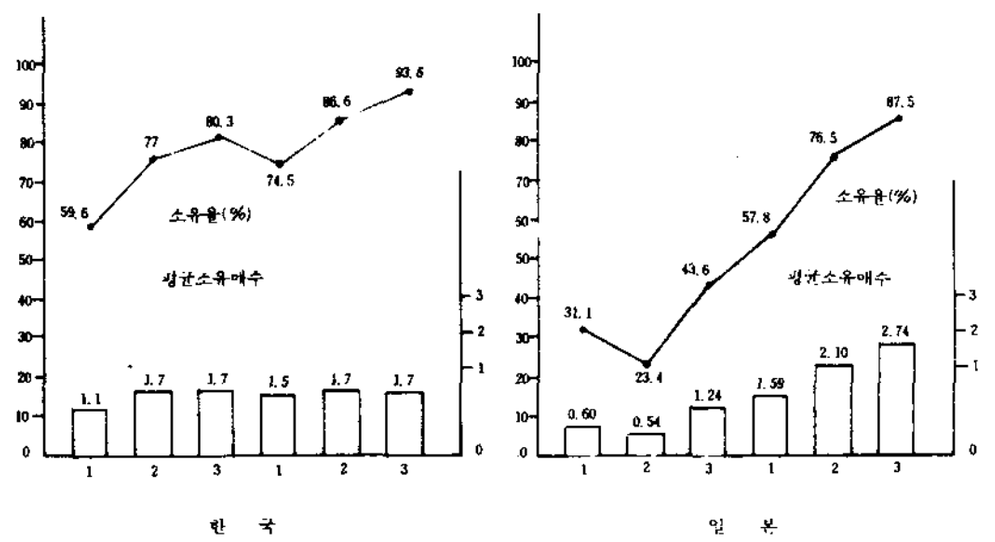
3. 슬립의 경우 중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브래지어의 소유율과 평균소유매수(圖 13)는 한국 여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중2부터 소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소유매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중1은 실제 착용하지 않아도 브래지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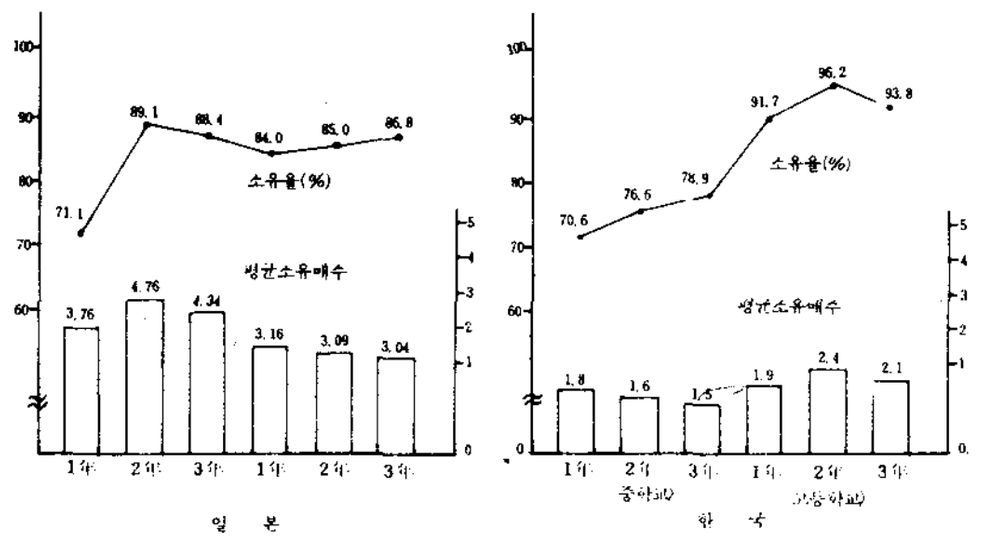
〈圖 13〉 브래지어의 소유율과 평균 소유매수

거들의 소유율과 평균소유매수(圖 14)는 일본의 경우 거들의 소유율이 중2에서 급상승하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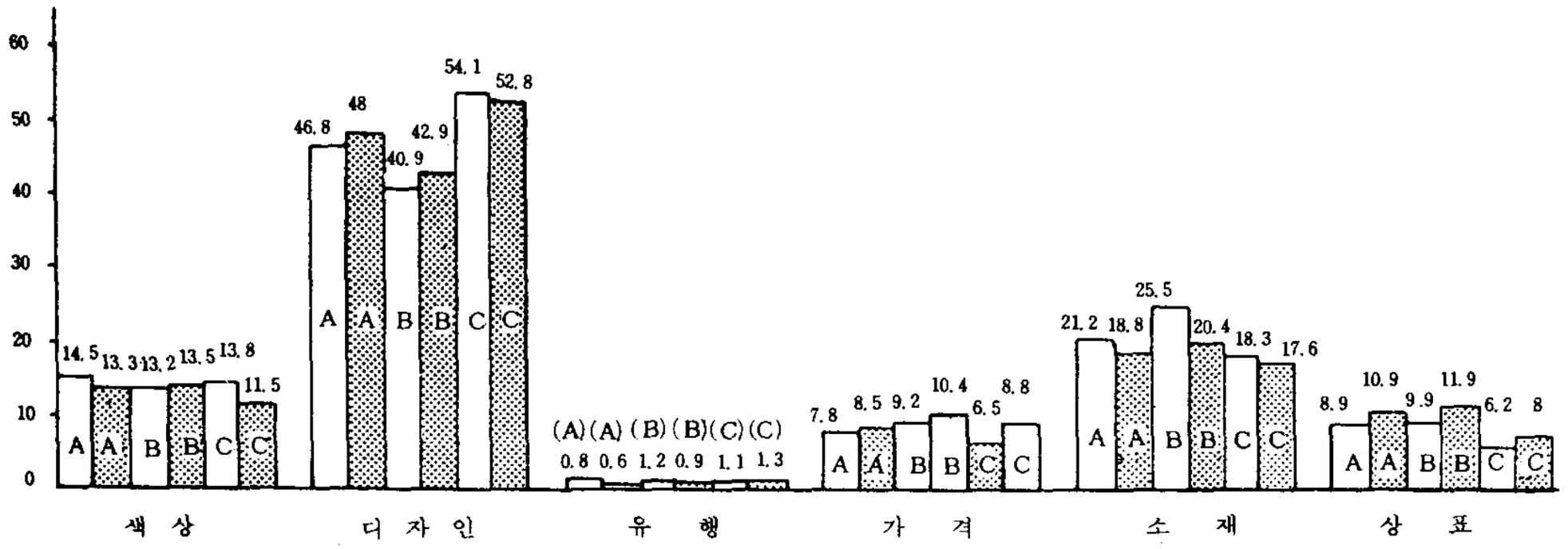
〈圖 14〉 거들의 소유율과 평균 소유매수

슬립의 소유매수(圖 15)는 일본 여학생보다 한국 여학생들이 적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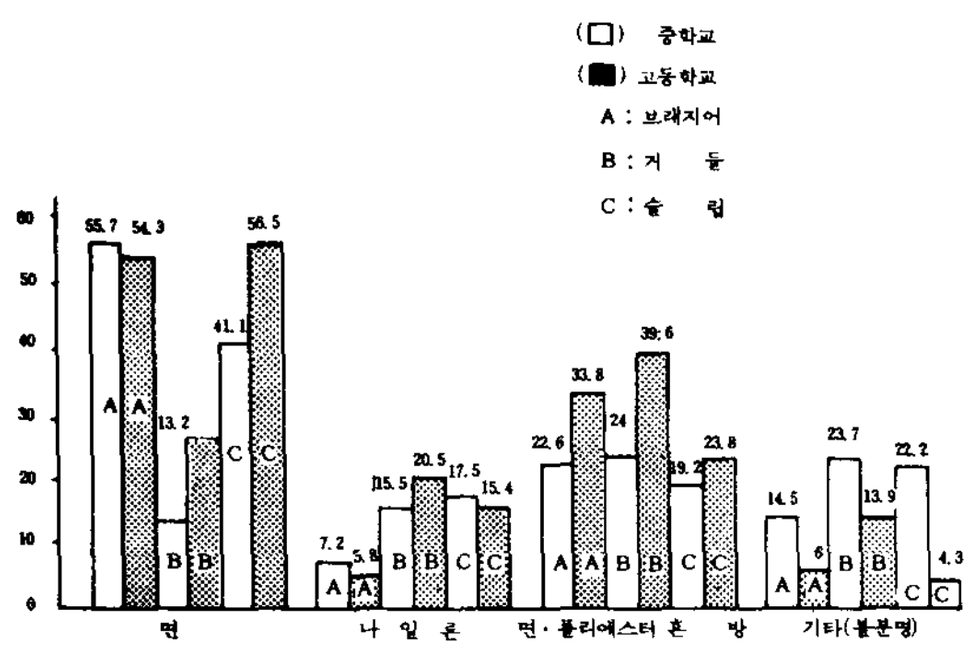
〈圖 15〉 슬립의 소유율과 평균 소유매수

언더클로스 구입시 중요시하는 점(圖 16)은 「디자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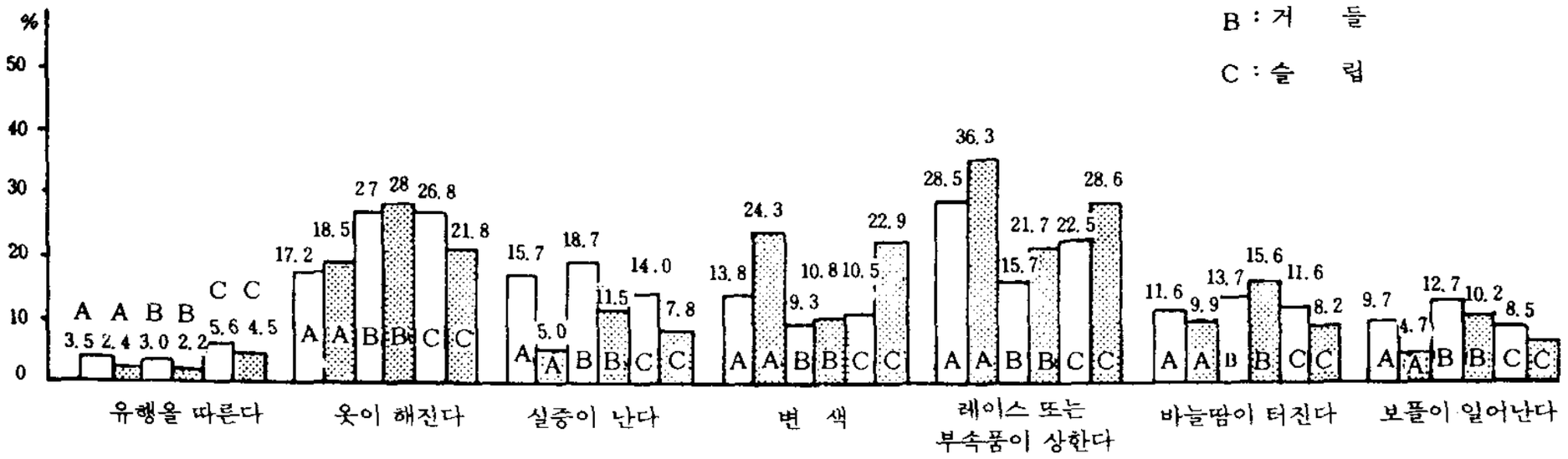
〈圖 16〉 언더클로스 구입시 중요시하는 점

언더클로스의 材質(圖 17)은 중학생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기타」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언더클로스 재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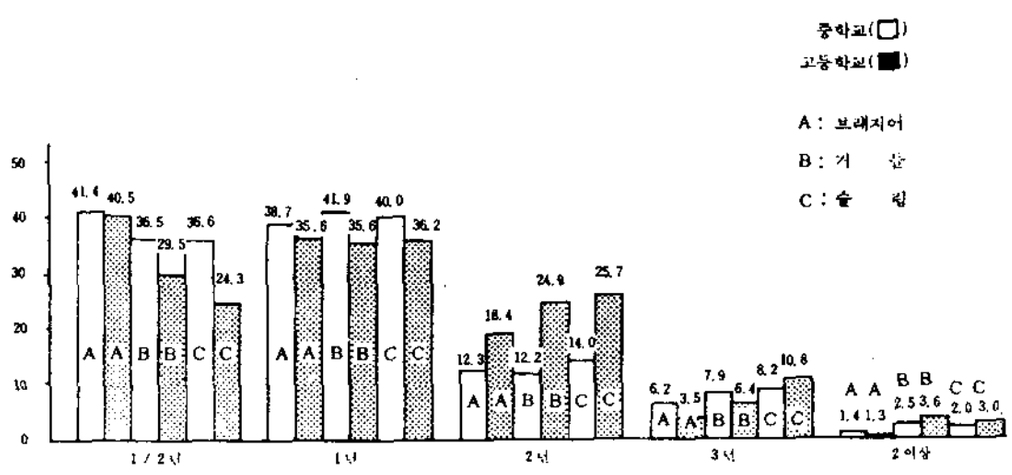
〈圖 17〉 언더클로스의 材質

언더클로스의 폐기원인(圖 18)은 「레이스 또는 부속품이 상한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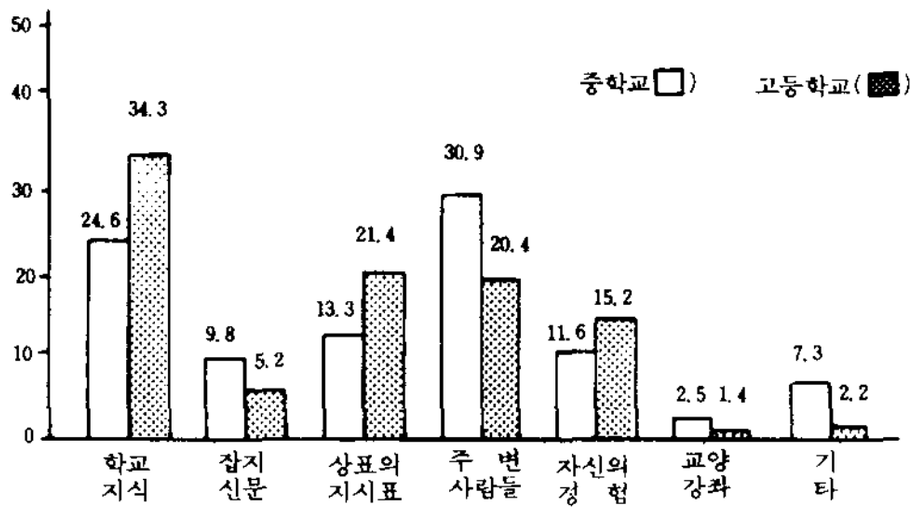
〈圖 18〉 언더클로스의 폐기 원인

언더클로스의 着用年限(圖 19)은 ½~ 1 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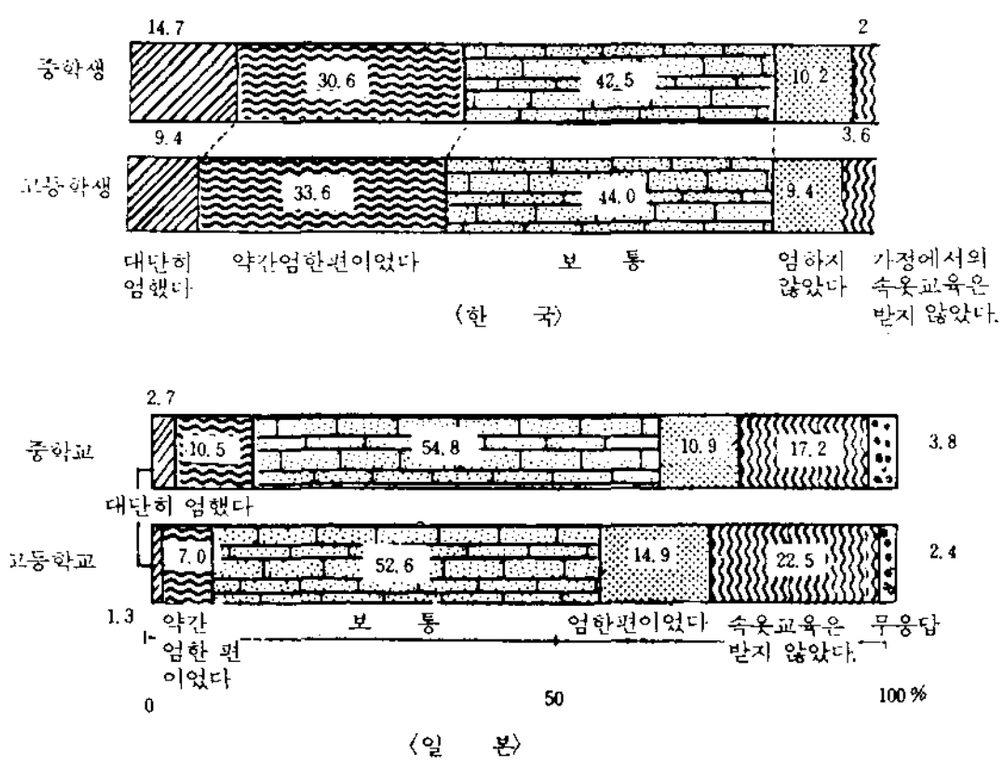
〈圖 19〉 언더클로스의 착용 연한(폐품이 되기까지)

언더클로스 관리지식(圖 20)은 대부분 「학교지식」, 「주변사람들」, 「상표의 지시표」에서 습득하는 것으로 학교, 가정, 언더클로스 업계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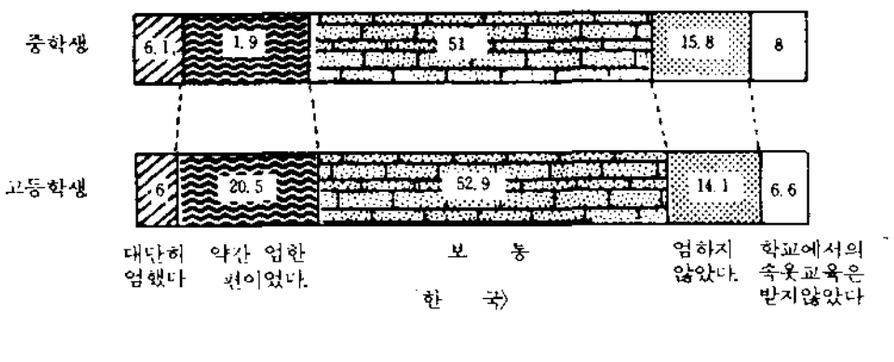
〈圖 20〉 언더클로스의 관리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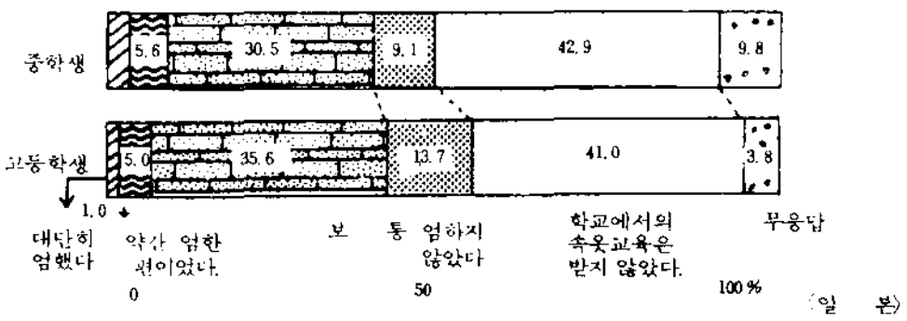
가정에서의 언더클로스 교육(圖 21)은 일본에 비해 한국이 엄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단순히 착용여부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圖 21〉 가정에서의 언더클로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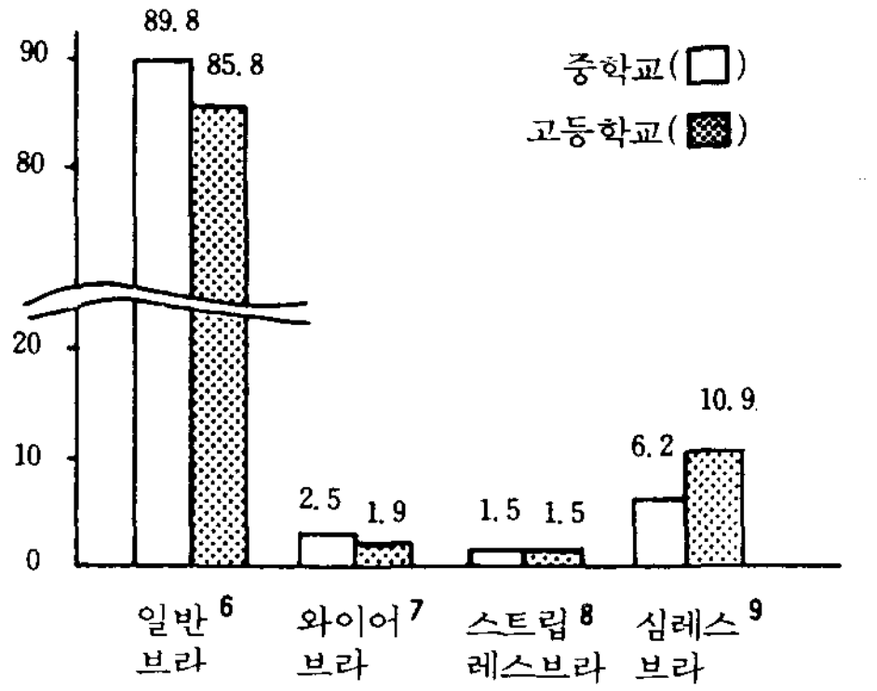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언더클로스 교육(圖 22)은 일본에 비해 한국이 엄한 편으로 나타난 것은 주로 착용여부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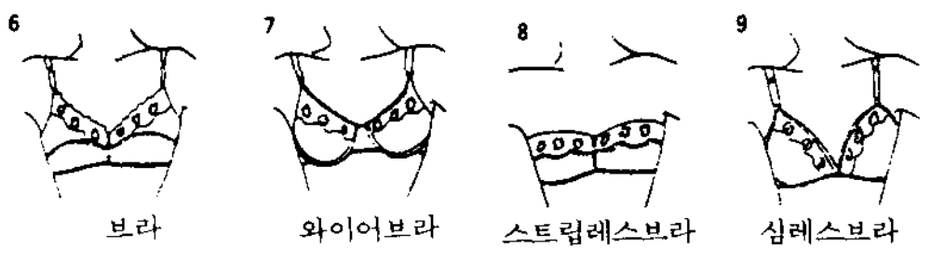




〈圖 22〉 학교의 언더클로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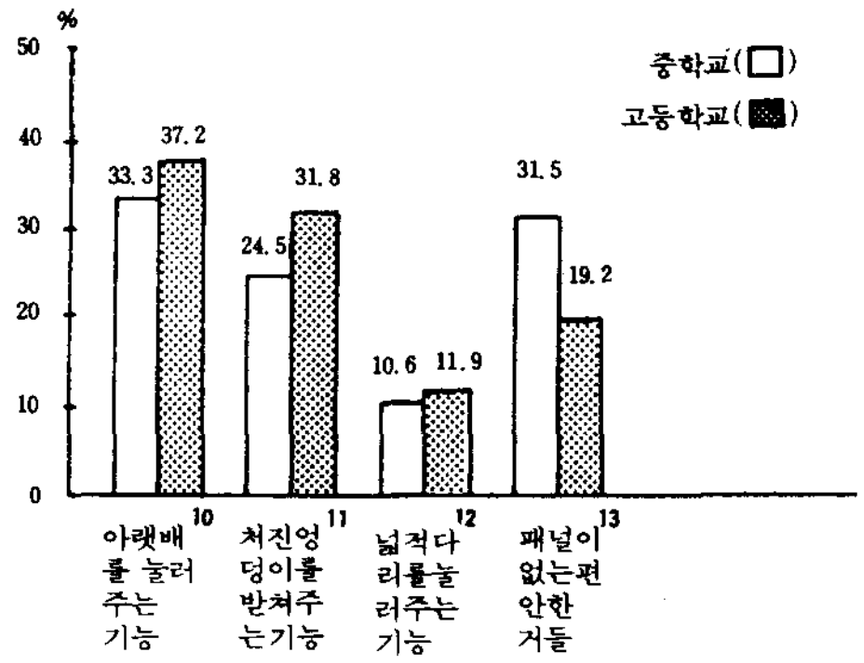
브래지어의 착용실태(圖 23)는 주로 일반 브래지어만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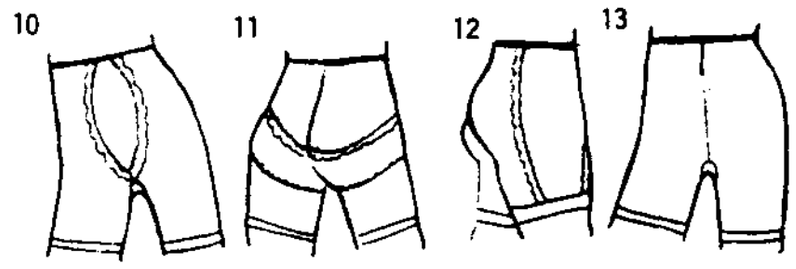




〈圖 23〉 브래지어의 착용 실태 및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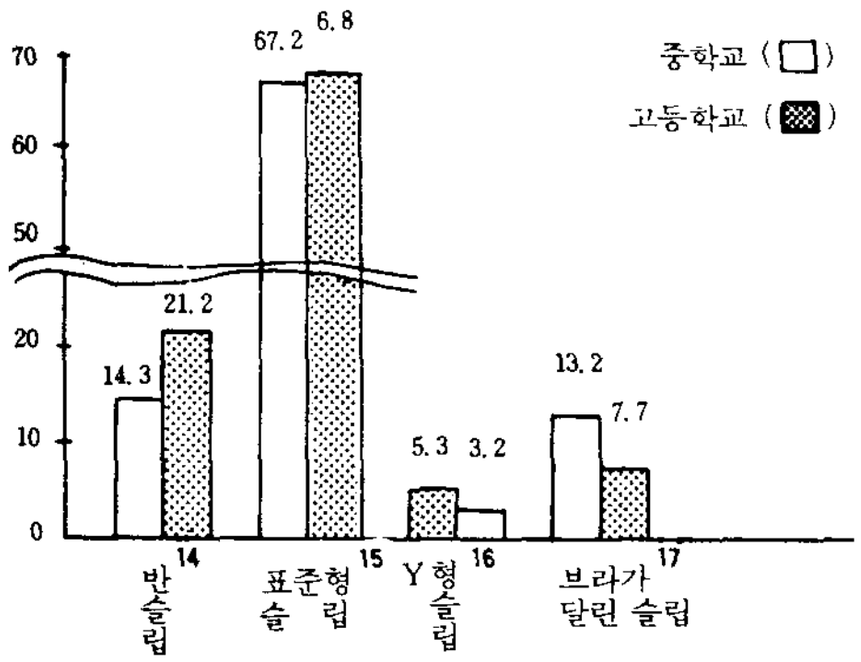
거들의 기호도(圖 24)는 중학생의 경우 패널이 없는 편안한 거들을 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아랫배를 눌러 주거나 처진 엉덩이를 받쳐주는 기능을 가진 거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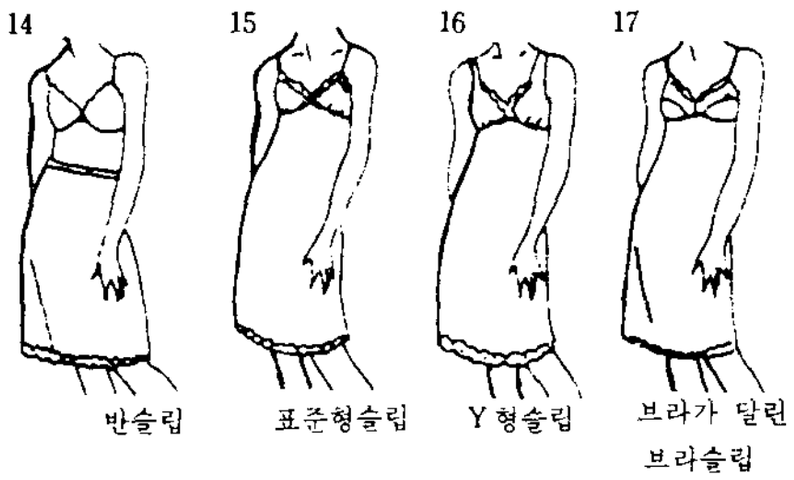




〈圖 24〉 거들의 기호도 및 모형

슬립의 기호도(圖 25)는 중고생 모두 표준형 슬립을 원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반슬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 25〉 슬립의 기호도 및 모형

Ⅳ. 結　　論

본 논문은 언더클로스 중 인체에 밀착되어 이상적인 몸의 균형을 가꾸어 주며 실루엣을 나타내는데에 매우 중요한 브래지어, 거들, 슬립의 연구이다.

특히 역사적 도입과정과 우리나라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언더클로스에 대한 관심도 및 착용실태를 알아보고 지역별, 學校種別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우리나라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언더클로스 착용실태 분석 결과 일본 여자 중고등학생들이 바디라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언더클로스 구입에 있어 지역차가 심하게 나타나 강남지역은 백화점, 강북지역은 시장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自意에 의한 것보다는 주위사람에 의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자신의 체형과 용도를 고려치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C. 우리나라 언더클로스 교육은 본 연구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 비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엄한 편으로 나타났는데 연구 분석 결과 실생활에 있어서는 일본의 여학생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착용 여부만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체형과 용도에 맞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언더클로스업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姜蕙遠(1974), "大學生의 個性과 유행을 中心으로한 의상행위와 性格特性과의 관계."「延世論叢」, 十一輯, pp. 349－374.

문영애 等([n·d]), "우리나라 Brassiere의 생산 현황과 소비실태", 연세대학교 가정대학「婦學」.

服裝文化協會編(昭和51年),「服裝大百科事典」, 東京：文化出版局.

小池一子(共編)([n·d]),「The Under Cover Story」, 東京：大日本印刷株式會社.

Picken, Mary Brooks(1973),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Fank & Wagalls.

M. J. Horn(1968), The second skin, Boston：Hounghton Mifflin.

Tuner Wilcox([n·d]), The mode in costume, New York：[n·pub].

Carl Kohler([n·d]), A HISTORY OF COSTUME, New York：Dover Sturn and Grieser(1962), Guide to Modern Clothing, New York：McGraw Hill book Company.

김병미(1975), "青少年의 衣服行態에 관한 硏究",「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3호, pp. 31－45.

李明姬(1983), "禮儀·貞淑性과 審美性을 中心으로 한 大學生의 衣服行動과 관련된 心理的 變因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荒木雅夫(編)(昭和56年),「ボディフアツシヨン, アテイケルス」, 東京：株式會社 繊維商業 ニュース社.

ボデイフアツシヨン協會(1980),「Woman Woman Fair」, 東京：ボデイフアツシヨン協會.